



충청지역
은행나무

왜군에게 겁을 주는 은행나무

✿	지정번호	영동-20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지정년도	1982		웅득리 367
	관리기관	영동		36° 15' 10.52" N
	수령	637년		128° 01' 31.33" E
	수고	35m		
	흉고둘레	10m		

마을 입구에 있는 보호수(영동-20) 은행나무는 몇 개의 굵고 가는 줄기가 뿌리에서 따로 나온 듯 하나의 나무로 뭉쳐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637년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신라와 백제의 국경 표시로 옛 절터 마당에 심었다는 전설을 기준하면 현재 추정하는 나무나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나무높이는 35m, 가슴높이둘레(겉줄기 포함)가 1,000cm 가량이다. 줄기는 밑동에서 몇 개가 겹줄기처럼 자라고 있다. 주변에 쉼터 표시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정자가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기한 나무와 관련이 많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마을에 일이 있을 때면 영험한 예건의 징조를 나타내었다. 임진왜란 직전의 일이다. 은행나무에서 땀과 같은 물이 흘러 흥건히 젖더니 얼마 안 있어 임진왜란이 터졌다. 그리고 당시에 왜병들이 추풍령에서 우리의 의병대와 격전이 벌어졌을 무렵에는 왜병들이 현몽(죽은 사람이나 신령이 꿈에 나타남)을 꾸었다.

전쟁에 참여한 왜병들은 눈만 감으면 꿈에 큰 은행나무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자신들의 진지로 들이닥쳤다. 그래서 그 고목 등걸 밑에 수많은 군인(왜병)들이 깔려서 죽는 꿈을 꾸곤 하였다. 왜병들이 하도 이상해서 큰 나무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내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지금의 보호수 은행나무이었다. 그 후 왜병들은 겁을 먹고 이 은행나무를 피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 밖의 전설도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나라의 굵은일이나 마을의 큰 변고가 있을 때에는 이 은행나무에서 땀이 흘러나와 흠뻑 젖었다. 경술년 한일병합 때에는 은행나무에 땀이 흐르고 이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병자년에는 은행나무가 울자 마을이 온통 큰 수해를 입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락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로 믿어 오래전부터 제를 지내왔다.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이면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한 해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